

B2B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정책적 과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olicy Problem of the Electronic Credit Selling Bond
for B2B Electronic Commerce

윤창술*

목 차

I. 머리 말

II.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주요내용

III.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해결과제

IV. 맺 음 말

참고문헌

Key Words: B2B전자상 거래 지급결 제수단,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자채 권 양도의 대항요건, 전자외상매출채권 우대지원

Abstract

* 진주산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전임강사, 법학박사, 연구실 055-751-3662, 휴대폰 018-211-7229, yoonchsu@hanmail.net

I. 머리말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B2B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B2C에 비해 거래금액이 거액이므로 비대면결제의 편리성보다는 대면결제의 안전성과 확실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세원노출을 꺼려하고 거래선과의 관계유지 및 협력을 위한 비공개구매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문화적 요인까지 작용하여 B2B거래에 상응하는 결제수단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물품거래, 오프라인 대금결제'라는 '반쪽 e마켓플레이스'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B2B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한 지급결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가 2002년 3월에 도입되었다.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는 B2B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음·수표의 결제 관행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금융기관간에 호환사용이 가능한 표준 결제수단의 개발 차원에서 우리 나라에 도입되었다. 즉 현행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판매기업의 납품대금 현금화를 촉진하기 위해 B2B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를 네트워크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어음결제축소의 방안으로 도입된 현금성결제제도²⁾의 하나인 전자외상매출채권은 기업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 기능을 혼합한 전자적인 형태의 금융결제수단이다. 이 제도

의 도입으로 어음·수표 등 장표 위주의 결제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은 B2B거래의 활성화, 결제수단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는데 그 출발점은 현행 어음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채권의 존재가 지면의 형태가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만 인식된다는 의미에서 무권화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B2B 상거래의 지급결제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이라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국가적 결제 인프라로 성장하기 위한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법률적 과제와 우대지원 과제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해결책을 제시해본다.

II.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주요 내용

1. 의의

전자외상매출채권이란 기업들이 은행과 약정을 맺은 후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전자증서)을 발행 해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결제 수단으로 판매기업은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제도이다. 즉 이는 기업간

2) 이에는 전자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가 있다.

물품구매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채권을 구매기업이 만기를 정한 전자식채권³⁾으로 변경하여 금융결제원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이다.⁴⁾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제2조 1호에서는 전자채권(즉 전자외상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이 상거래를 통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구매기업이 본 약관에서 정한 변경권에 기하여 전자채권발행대행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채권의 결제, 행사방법, 결제시기 등을 변경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변경되는 채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약관 규정에 따라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용도는 온라인거래와 오프라인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상거래용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기업간거래에서 이용된다는 점에서 B2B의 지급결제수단이므로 기업 이외의 소비자거래는 비슷한 구조를 띠더라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범주에는 포함될 수 없다. 거래의 대상은 동약관에서 ‘재화 및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구매거래가 포함되나 성격상 금융거래 등은 제외된다고 본다.⁵⁾ 이와 관련 동약관 제6조 제3항에서 “전자채권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구매대금 결

제용으로만 발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은 구매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구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구매계약상의 대금채무의 반대 급부(재화의 인도?용역 제공 의무)의 선이행 여부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⁶⁾

무엇보다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은 변경권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변경권은 동약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품대금채권을 전자외상매출채권으로 변경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발행은행이 금융결제원에 의뢰하여 발행등록됨으로써 전자외상매출채권으로 변경된다(동약관 제3조 제3항). 그밖에 약관에서는 등록이 요건이며 등록기관이 정해져 있다는 점과 결제시기0104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은행의 보증 유무에 따라 보증·무보증 전자외상매출채권으로 구분된다. 보증전자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의 거래은행(발행은행)이 지급보증⁷⁾을 한 것으로서 만기에 구매기업이 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을 결제하지 못하는 미결제⁸⁾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행은행이 대지급을 해 준다. 이 경우 판매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미결제 위험이 없는 채권이며 판매기업의 거래은행(보관은행)으로서도 판매기업에 대하여 안심하고 담보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무보증 전자외상매출채권은 발행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3) '전자식 채권'이란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변제를 약속한 채권으로서 서면상으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전자문서에 한 전자적 방식의 채권을 말한다.

4)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10권 1호, 비교사법학회, 2003.3, p.131.

5) 정경영, 상계논문, p.130.

6) 정경영, 상계논문, p.130.

7) 은행이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매매보호(escrow)서비스가 가능한데 이는 물품 인도 전에 구매기업의 거래은행(발행은행)이 판매기업 앞으로 은행보증채권의 지급위탁사실을 확인해 주는 결제대행서비스이다. 매매보호거래에서 발행되는 위탁전자채권은 물품매매계약이 이행되었음을 조건으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제2조 14호, 16호 참조).

8) 여기서 사용하는 '미결제'라는 용어는 어음에서 사용하는 '부도'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된다. 미결제 기업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어음부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미결제 제재를 가하기로 하였다(손희성,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1)-전자증권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2.5, p.40).

않은 것이므로 미결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은행이 대지급을 해주지 않는다.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장표의 발행·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하고 B2B 상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며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대금 결제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음사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어음남발에 따른 폐해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⁹⁾

둘째로 신용창조기능을 가져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양도유통이 불가하여 연쇄부도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전 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결제수단이므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개별기업에 대한 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 한도를 책정하여 전산으로 집중관리하므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180일로 제한함에 따라 결제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전자어음의 관계

1)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의 관계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 먼저 전자외상매출채권은 불완전유가증권으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물품매매계약상의 대금채권을 구매기업이 변경함으로써 발행되는 전자증권이라는 외형과 금전채권이라는 실체가 결합된 기명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유통성이 제한된 유가증권적 속성을 가진다.¹⁰⁾ 이에 반해 어음은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에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완전유가증권이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양도 유통을 금함으로써 지급의 신속성 내지 확실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어음은 유통성확보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이용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자외상매출채권은 담보제공능력이 있는 기업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어음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단점은 이용주체의 사정에 따라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판매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외상매출채권은 현금결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상당히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매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신용이 양호한 경우라면 굳어 어음을 발행하기보다는 현재 세제상의 혜택까지 주어지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어음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어음은 이용주체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는 상호보완관계이지 배타적인 관계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전자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기능의 장점을 혼합한 금융결제수단이라는 이유로 어음의 기능을 대체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서로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2)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의 관계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채권의 존재가 지면의 형태가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만 인식된다는 의미에

9) 강병호, 「금융시장론」, 박영사, 2003, p.92.

10) 정경영, 전제논문, p.131.

11) 권중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은 왜 필요한가?”, eBizKorea,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4, p.64.

서 무권화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B2B 상거래의 지급결제수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어음과 기능이 비슷하며 어음을 전자적으로 대체할만한 제도라는 점에서 전자어음제도와 유사하다.

한편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양도를 기본적으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기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명채권의 방법으로 양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지명채권이나 기명채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전자어음에 관해 유가증권으로서 어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어음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법안에 의하면 전자어음은 지시채권이다.¹²⁾ 또한 '전자어음의 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정일 : 2004.3.22)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¹³⁾

이와 같이 전자어음이 전자외상매출채권과 다름이 명백한 이상은 전자어음에 대해 B2B의 결제수단으로서 전자외상매출채권과는 다른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전자어음은 B2C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제수단이 미흡한 B2B거래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¹⁴⁾ 하지만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연쇄도산 야기, 비용전가,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책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던 어음제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가 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다.

3. 네트워크 구성 및 절차

1) 네트워크 구성

B2B 결제수단은 주로 오프라인 상품으로 개발되어 온라인 방식의 상거래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한 점이 많고 특히 일부 온라인 결제수단의 경우에도 개별은행 차원에서 개발되어 은행간 호환 곤란, 중복투자 및 이용기업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2B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를 네트워크 상에서 물품매매의 전 과정이 서류 없이 온라인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금융공동망 기반의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이 추진되어 2002년 3월에 결제시스템을 처음으로 가동하였다.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시스템은 금융공동망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참가기관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은행, 사이버시장(e-Market place) 및 구매기업·판매기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물품매매와 대금결제를 자동 연계처리토록 함으로써 완결된 형태의 전자상거래의 구현과 신용공여기능 제공 등 국내기업의 결제관행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간에는 기존의 금융공동망 전용선을 활용하여 은행간 결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이버시장(e-Market place) 및 구매기업·판매기업과 은행간은 인터넷뱅킹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물품매매계약내용 통보, 채권 발행 신청, 담보대출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12) 권중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 1호, 2003.3, p.568.

13)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자어음법 제4조).

14) 권중호, 상계논문, p.563.

2) 절차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구매기업은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구매기업의 거래은행 앞으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을 신청하고 거래은행은 이를 확인한 후 채권을 발행하여 중앙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을 요청한다. 금융결제원은 기업별 약정내용(사업자번호, 채권발행 한도 등)과 함께 구매기업의 거래은행(발행은행)이 전송한 개별 채권발행내역을 전자채권등록원장에 집중 등록하는 한편 이를 채권자인 판매기업의 거래은행(보관은행)에 통보한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발행시에 발행일, 발행금액, 만기일, 전자채권의 종류, 발행은행과 보관은행 그리고 발행자인 구매기업과 채권자인 판매기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이러한 내용은 구매기업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되어 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등록된다.¹⁵⁾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금융결제원은 동 내역을 구매기업·판매기업의 거래은행 앞으로 각 통지하여 채권 결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은행간 자금결제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 통한 은행간 차액결제 방식을 이용한다.

한편 판매기업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만기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보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전자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다. 즉 구매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판매기업이 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상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4. 이용 현황

2002년 3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결제시스템 가동시에는 6개 은행만이¹⁶⁾ 참여하였으나 2003년 5월말 기준으로 13개 은행, 2004년 4월 기준으로 14개 은행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현재 시스템을 준비 중인 4개 은행의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시중은행이 참여하게 된다.

이용실적 면에서는 시스템 가동 이후 2002년(3월~12월 31일)은 443,077,258,000원(총 9,774건), 2003년은 1,893,728,467,000원(총 36,229건), 2004년 1월부터 2월 말까지는 416,361,084,000원(총 8,429건)의 전자외상매출채권이 발행되었다. 아직까지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이나 구매전용카드와 같은 다른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활발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은행들의 지속적인 참여증가와 접속방식과 같은 서비스 이용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향후에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Ⅲ.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해결과제

1. 법률적 과제

1) 법적 문제점

전자외상매출채권은 B2B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

15) 손희성, 전계논문, p.39; 김형민,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해", 자금결제와 정보기술, 2002.3-4, pp.52-53.

16) 조흥은행, 한빛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상매출채권을 전자화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에 의한 유통이 금지된다. 이는 어음제도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유통으로 인하여 기업의 연쇄부도가 유발되는 어음의 역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보관은행 앞으로 양도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 절차에 따른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에 의할 경우 대출을 해 주는 은행이나 대출을 받는 기업이 모두 불편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양도받으려는 자와의 합의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 길이 없으니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양도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또한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이에 따라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인 판매기업이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담보 확보를 위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형식을 취해야 하며, 현행법상 이러한 사실을 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자인 구매기업에게 확정일자부 통지를 하거나 구매기업으로부터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은 후에 비로소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 승낙은 실무적으로 약관에 의한 사전승낙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구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서 판매기업의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위한 양도를 사전에 승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확정일자라 함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말하는데, 은행은 일반적으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필요한 양도 통지와 승낙이 종이문서에 의한 오프라인 방식(내용증명 이용 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때문이다. 즉 지명채권의 양도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공증인과 공무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프라인 방식의 대출절차 때문에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나 대출을 받는 기업이 모두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먼저 내용증명 등과 같은 오프라인 방식에 의할 경우 판매기업이 담보대출을 신청한 후 실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4일이 소요되어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의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은행의 경우에도 양도 통지를 사람이 할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부담과 이에 따른 인건비가 가중되며, 내용증명 이용에 따른 비용도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중국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에게 전가되어 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결국 결제수단이라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실익을 반감시키게 된다.

2) 법적 해결책

전술한 바와 같은 오프라인 방식의 담보대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방식을 전자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⁷⁾ 즉 전자외상매출

17) 손희성, 전제논문, p.50.

채권은 민법상 지명채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관계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시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용증명우편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수행되어 온 채권양도 통지·승낙절차를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게 온라인 방식으로도 처리 가능하도록 법적인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확정일자 있는 종이문서에 의해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대신 확정일자 있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게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공증인과 공증사무소로 제한하고 있고 증서에 의한 것만을 확정일자로 인정하고 있어 전자채권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양도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결제수단의 하나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명시하고,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발행시 동 발행내역을 전자외상매출채권 등록기관(중앙관리기관)에 등록한 것처럼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내역을 중앙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관련은행 및 기업에 전송함으로써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또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양도 통지시의 대항요건 구비방법은 전자서명법상의 '전자문서 확정일자'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즉 전자서명법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¹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외상매출채권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통지한 시점을 대항요건을 구비한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점확인 기능이란 특정 전자문서에 대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시간정보를 첨가하고 전자서명함으로써 전자문서가

제출된 시점 및 당시 전자문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기능인데 이와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를 전자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자외상매출채권 등록기관은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생한 지급거래에 관련된 전자외상매출채권 권리의 발생내용, 변동내역 및 소멸내역을 등록관리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신뢰성, 안전성, 기술적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외상매출채권 등록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허가감독에 관한 사항도 법률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²⁰⁾

전술한 바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 제21조에서는 전자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개념인 전자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해 규정하여 그간 미결과제로 남아 있던 법리적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자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동법안 제21조 제1항에서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 통지·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때에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통지·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0조에 의한 시점확인인 있는 경우에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6대 국회가 사상초유의 대통령탄핵과 총선 등으로 회기말을 여·야간 정쟁으로 보내느라 금융거래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채 사실상

18) 손희성, 상계논문, p.50.

19) 제2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 손희성, 전계논문, p.51.

회기가 끝나게 될 예정인데 오는 5월말에 17대 국회가 개최되면 금융거래법안을 바로 제출해 처리가 되도록 하여 전자외상매출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우대지원 과제

정부는 B2B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음의 폐해를 줄이고 판매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취급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한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현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금액 및 지원율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기업구매자금대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담보대출시 신용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²¹⁾ 하지만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자보증²²⁾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보증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전자보증 대상이 되면 신용한도가 증액되고 보증료 부담이 경감되며 부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즉 일반보증인 경우에는 보증한도가

당기매출액의 1/4인데 반해 전자보증은 당기매출액의 1/2이고, 최고보증금액도 일반보증인 경우에는 30억원이지만 전자보증은 100억원인 것이다. 또한 보증료에 있어 일반보증인 경우에는 차감 보증료가 없으나 전자보증은 신용등급에 따라 평균 0.2%P 수수료가 차감되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²³⁾ 나아가 일반보증은 보증서 발급 이후에 상거래의 이행 여부를 추적할 수가 없어 부도징후의 체크가 어려웠다. 그런데 전자보증은 전자상거래 전용보증으로서 거래발생 시점에 e마켓플레이스로부터 매매계약의 내역을 신용보증기금이 통보받기 때문에 매매계약체결 상황을 추적할 수 있어 부도율을 줄일 수 있다.²⁴⁾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은 B2B 전자구매카드와 B2B구매자금대출 및 B2B종합통장대출에 대해서 B2B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전자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전자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동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정부물품구매입찰시 우대 및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완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증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시에는 법인세 감면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이 무보증전자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무보증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시에도 법인세 감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세무조사시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

21) 판매기업의 물품대금의 현금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를 이용한 담보대출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판매기업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3.3.13).

22) 전자보증이란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대금에 대하여 신용보증함으로써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즉 신용카드사처럼 구매기업에 대해 신용을 평가하여 전자상거래 전용으로 한도를 부여해 주고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도나 연체 등으로 제품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신용보증기금이 제품대금을 구매기업 대신 판매기업에 지급해 주는 보증제도인 것이다(박지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 eBizKorea,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2, p.53).

23) 박지인, 상계논문, p.54.

24) 박지인, 상계논문, p.54.

록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전자외상매출채권을 통한 결제실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²⁵⁾

IV. 맺 음 말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는 2002년 3월 결제시스템 가동시에 6개 은행만이 참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이용실적 면에서 아직까지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이나 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다른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용이 활발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은행들의 지속적인 참여증가와 접속방식과 같은 서비스 이용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향후에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용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e-비즈니스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 산업부문으로 계속 확대하여 나가고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를 온라인 상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세제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도 잠재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매매 보호와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들 제도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본 연구가 활용되었으면 한다.

25) 손희성, 전개논문, p.48.

참 고 문 헌

1. 강병호, 『금융시장론』, 박영사, 2003.
2. 권중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 1호, 2003.3.
3. 권중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은 왜 필요한가?", eBizKorea,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4.
4. 김형민,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이해",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2.3-4.
5. 박지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 eBizKorea,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2.
6. 손희성,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I)-전자증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2.5.
7.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 10권 1호, 비교사법학회, 2003.3.